

인간 중심 주의

인간만이 이성과 자율성을 지님 ->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 도덕적인 대우를 받아야 함

아리스토텔레스 : 목적론적 세계관(위계질서)

아퀴나스 : 자연은 인간이 사용하기 위해 존재한다.

베이컨 : 지식이 곧 힘. 힘은 자연을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이다.

데카르트 : 동물은 기계에 불과하다. 인간의 정신은 물질로 환원할 수 없는 존엄한 것

칸트 : 파괴정신은 인간의 자신에 대한 의무에 반하는 것. 자연을 폭력적으로 다루게 되면 인간의 도덕적 의무를 완성할 수 없다.

자연에 대한 의무는 인간의 도덕적 완성을 위한 간접적 의무이며, 이성적 존재인 인간 상호 간의 의무만 직접적 의무다.

동물 중심 주의

개체론적 관점을 지니고, 쾌고 감수 능력이 필요조건이다

싱어 : 도덕적 고려의 기준을 쾌고 감수 능력의 소유 여부로 따졌다.

동물의 고통을 무시하는 행위는 종 차별주의에 해당한다. 다만 이익 관심이 동일한 건 아니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동물의 고통을 줄이자고 주장했다. -> 과도한 동물 실험에 반대한다.

다만 인간과 동물이 동일한 권리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레건 : 내재적 가치를 갖는 대상은 목적으로 대우해야한다. -> 의무론적 관점

삶의 주체는 지각, 기억, 믿음, 감정, 의도 등을 지닌 존재다.

성장한 포유동물은 도덕적 무능력자지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삶의 주체로서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도덕적으로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동물에 대한 실험, 매매, 사냥, 식용 등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물이 지니는 가치와 권리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생명 중심 주의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모든 생명체로 확대해야 한다.

슈바이처 :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신성하다. 생명 외경적 태도를 가져야함.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선, 생명 억압은 악이다.

불가피하게 생명을 해쳐야 하는 상황은 있지만 도덕적 책임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테일러 : 모든 생명체는 각기 고유한 방식으로 자신의 생존, 성장, 발전, 번식이라는 목적을 지향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모든 생명체는 의식의 유무나 유용성에 상관없이 고유한 가치를 가진다.

자연 존중의 네 가지 의무 : 악행 금지의 의무, 불간섭의 의무, 성실의 의무, 보상적 정의의 의무

우선성의 원리 : 자기 방어 원리, 비례의 원리, 최소악의 원리, 분배적 정의의 원리, 보상적 원리

생태 중심 주의

도덕적 행위 주체가 아니어도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인간의 이익 관심을 넘어서 새로운 의무 요구

단순 즐거움을 위한 사냥은 반대하고, 종 차별주의를 반대한다.

동물 학대는 인간의 의무에 위배될 수 있다.

레오폴드 : 대지 윤리 주장 (모든 생명체 *대지 포함*)

대지 윤리에서 인간은 대지의 한 구성원일 뿐, 자연(생태계) 그 자체가 가치를 지님

생태계 전체의 유기적 관계와 균형 중시

생명 공동체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인간이 동식물을 자원시하는 것을 인정

네스 : 심층 생태주의 주장

자신을 자연과의 상호 연관 속의 존재로 이해한다.

모든 생명체는 상호 연결된 전체 속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본다.